

討 論

서울대 朴 世 熙

金容雲教授의 發表는 韓國과 日本의 傳統數學의 性格의 相似點과 差異點을 잘 파헤친 것으로 評價된다. 같은 中國數學을 받아들임에 있어서의 “變容”過程의 差異는 歷史的인 事實로 남아 있으나 現代에 있어서의 유럽數學의 受容 이후, 現在와 未來의 兩國學界의 性格이 어떻게 변해 나갈까 하는 點에서도 깊이 경청할 만한 內容이다. 더구나 東洋三國의 傳統數學에 있어서의 韓國의 역할이 컸음을, 中國에서조차 逸失되었던 書冊들이 韓國에서 保存되어 왔다는 事實로도 잘 이해될 수 있거니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重要한 事實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點에서 앞으로의 研究가 期待된다고 하겠다.

다음, 下平教授는 東洋三國이 共通으로 가지고 있는 特異한 數學的 事實(九九라든가 計算器具)을 지적하고, 個人的 體驗에 입각한 흥미있는 얘기를 發表하였다. 그 내용은 간단한 示唆에 그쳤을 뿐, 깊은 分析은 없다.

두분의 얘기를 듣고, 본인이 느낀 바로는, 日本의 傳統數學史 같은데서 韓國의 影響을 소홀히 다루어 온 態度가 조속히 是正되어야만 바른 歷史가 써어질 줄로 생각되며 우리 學界도 이런 觀點에서 새로운 研究가 進行되어야 좀더 큰 結實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現在의 韓日 兩國의 數學界를 비교하여 보면, 韓國의 數學者들은 몇분을 빼고 나면 비교적 日本의 影響을 받지 않고 공부한 한 분들이며 또 兩國間의 交流도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더 큰 原因은 日本이 韓國의 基礎科學 育成을 크게 장해하였고 또 방해하고 있다는 과거와 현재의 뼈아픈 事實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現在는 항상 짧은 것이며, 긴 未來를 생각할 때, 兩國學者들이 과거 몇千年 동

안의 긴 交涉을 거울삼아 서로 좋은 影響을 주고 받음으로써, 極東地域의 文化가 다른 地域의 模範이 되도록 키워나갈 것이 바람직스럽다.

延世大 林 禎 堃

- 1) 過去 日本에 있어 가령 墨子, 荀子, 韓非子와 같은 論理學이나 論理에 관한 연구 또는 업적이 있으면 그에 관해 설명을 해 주시오.
- 2) 円周率(π)의 時代別 발전과정의 中國의 그것과 다른 點이 있으면 밝혀 주시오.

서울대 金 永 植

俞景老교수는 조선조에서 世宗朝에 七政算內外篇이 편찬될 때까지의 授時曆, 大統曆, 回回曆의 도입, 그리고 仁祖朝에서 肅宗朝를 거쳐 英祖朝에 이르는 동안의 中國을 통한 西洋曆의 도입과 소화에 대해서 자세한 전달을 보이고 이 두 시기에 있어서 조선이 中國의 역법을 도입하는 양상에 있어서 나타나는 차이를 지적했다.

이처럼 조선왕조가 발달된 역법을 중국으로부터 혹은 중국을 통해서 도입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의있는 일이다. 이것은 비단 그러한 역사적 사실 자체의 이해를 두고서만이 아니라, 한 문화권의 외곽지역에 그 문화권의 中心部의 과학이 전파되는 양상, 그리고 어떤 문화권에 다른 문화권의 과학이 전래된 후 그 내부에서 퍼져 나가는 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주지하는대로 유경로교수는 직접 七政算內外篇의 國譯에 참여했었고 그후 조선조 역법과 천문학에 관한 많은 연구를 해서 우리의 조선조 역법, 천문학의 이해에 크게 기여해 왔

다. 이번에 그가 그러한 역법과 천문학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측면에 대해서도 다루기 시작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 그는 다음과 같은 극히 흥미있는 결론들을 얻어내고 있다.

첫째, 칠정산 내편은 조선조 초기에 문화가 융성하던 시기에 편찬되었고 이를 반영해서 중국역법의 수용에 있어 자주적인 선택을 보였다는 점이다. 大統曆과 授時曆을 비판적 입장에서 양자의 장점을 살려가며 선택적으로 수용한 것이 이를 보여 준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時憲曆의 수용은 조선이 정치적·사회적 시련을 겪던 시기였고 이를 반영해서 그 수용에만 급급했다고 俞교수는 주장한다. 계속해서 淸國에 왕래하면서 中國의 曆法을 細部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둘째로, 俞교수는 칠정산내편이 주로 堂上官들에 의해서 편찬된 데 반해 時憲曆은 주로 中人계급이었던 전문 曆官들에 의해서였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것이 전문적인 일에 종사하는 中人계층이 출현했음을 보여 준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俞교수의 연구는 극히 흥미있고 이렇게 짧게 발표되기에는 방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자세하고 뒷받침이 잘된 力著가 그에 의해 나오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우선 생각하게 되는 한두가지 의문을 제시하기로 한다.

먼저 俞교수는 大統曆과 時憲曆의 수용에 있어서 나타나는 차이를 조선조 자체의 형편의 차이에서 주로 연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시기에 있어서의 조선조의 형편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면도 있다. 西洋曆이 도입되던 시기인 丙子 胡亂의 폐허를 딛고 서서 국가의 기틀을 다시 다지려 하던 시기였으며 이런 면에서 仁祖—肅宗—英祖에 이르는 시기는 조선초에서 世宗朝에 이르는 시기과 비슷했다. 이러한 시기에 制度確立 및 文化暢達의 일환으로 중국의 역법을, 들여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다. 그

렇다면 오히려 위의 차이에는 중국에서 들어온 曆法자체의 차이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즉 세종조에는 어느정도 자리잡혀 있는 중국의 역법들을 충분히 소화한 상태에서 받아들인 것이고 나중의 西洋曆 도입에는 중국 자체도 계속 변화해 가는 서양의 역법을 받아들여가는 과정에서 계속 문제를 노정시키고 변화를 겪고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둘째로, 俞교수는 中人신분 曆官계층이 조선조 후기에 출현했다고 세종조에서 堂上官들이 曆法편찬을 주도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일론 수궁이 가지 않는다. 세종조에도 堂上官들은 지도적 역할만 담당하고 세부적이고 내용이 되는 주된 일들은 낮은 층의 실무진들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결국 전문 曆官들이 주로 맡아서 하는 일에 王 자신의 깊은 관심 때문에 堂上官들이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점은 비단 曆法만이 아니라 醫學, 音聲學, 和音學, 印刷術 등에서 비슷하게 볼 수 있어서 이런 분야들에도 王의 깊은 관심이 堂上官들의 참여를 가져온 점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문들이 앞으로의 俞교수의 연구에 의해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KIM Yung Sik

Professor Nakayama concentrated his attention on the ways the ancient astronomical records can be used in the present day. He talked about three kinds of uses. The first is application to astronomy, mainly for determination of astronomical parameters. The second application is to historical and archaeological dating, which could be very accurate with errors of less than a day, something unthinkable in the common methods like C¹⁴ dating. The third application that Professor Nakayama discusses is to understanding cultural exchanges between different cultures.

For, if two different cultures use a same set of astronomical parameters and computation methods, it could be a proof that there were cultural interactions between the two cultures, which include astronomy. Using this method Neugebauer, for example, maintains that the Chinese astronomy developed independently from the Babylonian astronomy that influenced the entire area to the west of India. This is a very interesting discussion. It shows that studies of the ancient astronomical records can be useful for archaeology and general cultural history as well as astronomy itself. Of course we have known about these uses of the astronomical records. But Professor Nakayama has listed and discussed them neatly and systematically and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Chinese astronomical records.

I have nothing to add to or criticize on this. I would like simply to add a point, which is bound to become what we would call "snake's legs (蛇足)". I am even sure that Professor Nakayama will completely agree with me, because he mentioned in the beginning that he does not discuss the intellectual historical approach, which is not unique to history of astronomy. The point is that the uses Professor Nakayama discussed are practical uses of the ancient astronomical records and are secondary, or incidental, ones. The more important and primary use, or purpose, must be the understanding of the ancient astronomy, the ancients' conception of the world in general, and the method they used and the degree of sophistication they reached in this branch of their knowledge. And as historians of science these aspects will remain to be our major concern when we study the ancient astronomical records, as the works of Professor Yabuuti and of Professor Nakayama himself have shown.

Professor Park Seong-Rae presented another extremely interesting discussion of the political uses, or abuses, of the portent records, this time in early Choson period. Discussions of portent records are always interesting because they deal with strange phenomena or with interesting interpretations of some phenomena which may not appear strange to us at the present time. But it is also very important because portents are usually phenomena which lie on the boundaries between what people think natural and supernatural. Therefore, understanding the ways people viewed and interpreted these phenomena can throw light on their conception about what is natural and about the phenomena and objects in the natural world.

On Professor Park's discussion itself I will only raise a question, mainly on his use of the term "Confucian Portentology," but indirectly also on his interpretation. To me what Professor Park calls "Confucian Portentology" represents more of the ideas of the Han Confucians like Tung Chung-shu than those of the quite rationalistic Sung Neo-Confucians of the Chu Hsi School, whose philosophy the early Choson adopted. Some of the reactions of the early Choson kings that Professor Park narrated sound more like the superstitious practices which the Neo-Confucians like Chu Hsi deplored. (And I wonder if this may have something to do with the Buddhist inclinations of these early Choson kings.) On the other hand the attitude of King Yonsan that Professor Park quoted appear more congruent to the Neo-Confucian conception of nature and portents. My question, then, is this: Is it not possible to see the gradual decline of what Professor Park calls "Confucian Portentology" as the gradual rise of the "Neo-Confucian Portentology"?

延世大 羅 逸 星

中山茂先生에게 質問을 해보겠습니다. 韓日兩國의 現代學者들이 傳統的인 東洋의 科學에 對한 認識이 不足한 面이 몇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用語에 關한 것인데, 제가 特別히 關心을 가지고 있는 것은 星圖와 雨量計입니다.

먼저 星圖에 關해서 이야기해 본다면 星圖라는 用語는 地圖라는 用語와 對應시켜 天體들의 位置를 表示한 것인데 東洋에서는 오래 전부터 天文圖라는 名稱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名稱이 언제부터 星圖로 바뀌었는지 分明치 않은 채 韓日兩國에서 使用되고 있습니다.

둘째, 測雨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測雨器의 경우, 天文圖의 경우보다 더 問題가 있습니다. 그 理由는 測雨器란 器名은 發明者인, 世宗이 부른 名稱입니다. 따라서 이는 固有名詞인데, 世宗의 測雨器와 그 以後의 英祖의 測雨器의 存在를 몰랐던 開花期 때의 日本의 學者들이 유럽 文物을 導入하면서 雨量計라고 이름붙인 것이 그 後 韓國에도 傳播되어 雨量計라고 부르게 된 것 같습니다.

歷史적으로는 처음 科學史를 工夫하는 兩國의 學者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므로, 이를 계기로 앞으로 위와 같은 天文圖와 測雨器를 비롯하여 過去의 좋은 名稱을 發掘하여 定着시키도록 日本側에서 努力할 수 있겠는지의 與否를 묻고 싶습니다.

答: 中 山 茂

興味있는 質問에 감사합니다.

日本人의 손으로 된 天文圖로서는 17世紀末에 涉川春海가 만든 天文成象圖, 天文分野之圖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9世紀 中葉頃 그 後孫들에 의해서 箱子 속에 넣어서 整理될 때 箱子에 星圖라고 썼습니다. 같은 時代에 「星學須知」(涉川佑賢寫)라고 題한 書物이 저술되어 있고, 明治에 들어서는 天學이나 天文學과 並行해서 「星學」이라는 말이 使用되었습

니다. 제가 졸업한 東京大學의 天文學科는 明治 때 創立될 때쯤에는 星學科로 불리었고, 그 後 大正期에는 天文學科로 名稱이 바뀌어 現在에 이르고 있습니다.

天文이라고 하면 天文占을 包含하여 오래고도 넓은 概念이 있었겠지만, 後에 近代科學으로서의 天文學을 導入하려고 했을 때, 傳統的인 天文과는 다르다는 點을 分明히 하기 위해서 「星圖」라든지 「星學」이라는 말로 變換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天文學은 단지 별만을 다루는 좁은 것이 아니고, 宇宙 全體를 다루는 넓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元來의 天文을 復活시키는 것이라고 적어도 나는 解釋하고 있습니다(과연 어느 정도 天文을 벌을 이름짓는 것으로 變化시켰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當時에 說明하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만).

어쨌거나 明治期의 日本人은 西洋의 科學을 導入하는 경우, 傳統的인 學問과는 다른 點을 強調하려 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用語를 發明하여 使用하는 傾向이 있었습니다. 現在는 그런 것은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測雨器의 경우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明治 21年(1888年)에 出版된 *Physical Terms*라고 하는 西洋의 物理用語의 譯語辭典에는 이미 rain gauge의 譯으로서 雨量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번역했던 山川健次郎(物理學者로서 後의 東大 總長)이 直譯했던 것인데, 世宗의 測雨器의 일을 몰랐던지, 아니면 알았어도 새로운 用語를 쓸 필요를 느꼈던지 그 어느 것이었겠지요. 日本帝國主義者가 예전의 用語를 故意로 彈壓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希望합니다만. (羅逸星 옮김)

圓光大 鄭 遇 悅

宮下三郎先生의 發表를 듣고 몇가지 疑問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옛부터 내려오는 風俗과 比較하여 理解가 안되는 部分이 있기에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先生은 日本에서는 苦手(니가메)의 사람이 만든 料理는 무엇이고 맛이 없다고 하고, 또

苦手(니가메)의 사람이 배앓이 환자의 배에 손가락을 대면 이때 배앓이가 낫는다고 傳해져 내려오는 니가메의 傳說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日本에서는 니가메의 사람은 그 손이 사람의 病을 낳게 할 수 있는 神秘性은 있으나 飮食物의 料理는 맛이 없다는 點으로 니가메는 사람의 손의 어떤 性質 卽 適性을 말씀하신 듯하고 이러한 적성을 가진 니가메의 사람은 직업적으로 볼 때 안마나 지압과 같은 직업을 가지면 자기의 적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으로 理解됩니다. 그런데 先生의 發表中 日本에서는 니가메의 習俗이 전해오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어 마치 按摩나 指壓과 같은 어떠한 手技法으로 理解가 되니 苦手が 위의 둘 중에서 어떤 것을 意味하는지를 우선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先生이 말씀하시는 苦手が 前者를 뜻한다면 이것은 靈樞經의 官能篇의 手毒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니가메와 靈樞經의 官能篇을 關聯지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苦手の 意味가 後者の 경우라면 靈樞經의 官能篇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라면 具體적으로 니가메란 어떻게 하는 手技法인지 말씀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日本에는 實際 니가메의 行爲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요?

본인은 靈樞經의 官能篇은 五官의 作用에 依한 治療의 能力을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用鍼理致의 總括, 補波 手技의 說明, 施術者의 能力에 依한 適性을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이 맵고 다부져서 물건을 잘 파손하는 者는 積塊나 頑固한 痺(麻痺)를 按摩케 하는 것이 適合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니가메를 官能篇과 연결시킨다면 苦手란 사람이 천품적으로 지닌 하나의 재질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苦手が 우리나라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風俗과 같은 뜻에서 말씀하신 것인지는 先生의 見解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는 先生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

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 전통적인 가문에서 집안이 잘 되려면 그 집안의 장맛이 좋고, 그 집안이 망하려면 장맛이 쓰다고 해서 장맛과 家運의 盛衰를 연관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의 맛이란 장을 담그는 사람의 솜씨에 달렸다고 볼때 그 손과 어떤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장의 맛이란 똑같은 사람이 담그더라도 어떤 어떤 해에는 맛이 좋고, 어떤 해에는 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장맛이 좋은 사람이 있고, 장맛이 좋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이로 볼때 장을 담그는 사람이 그때 그때에 따라 손의 솜씨가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點에서는 先生이 말한 니가메와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장맛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일치되는 말입니다.

또 우리의 할머니가 손주가 아프면 『내 손은 약손이다. 내 손은 약손이다.』하면서 배를 문지르는 풍속이 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때 배를 문지르면 배앓이가 낫는 경우를 어려서 종종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장을 담그는 사람이나 배를 문지르는 할머니의 精神的인 問題와 연결되는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이미 內經 移精變氣論(13篇)에서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즉 『黃帝問曰, 餘聞古之治病, 惟其移精變氣, 可祝由而已. 今世治病, 毒藥治其內, 針石治其外, 或愈或不愈, 何也? …』라 하였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病을 治療하는 데 施術者의 精神을 患者에게 옮기고 氣를 變하여 祝由(神에게 빌다)만으로도 잘 낫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病을 治療하는 데 藥이나 針을 써서도 혹은 治療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治療가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그 理由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岐伯은 여기에 대한 解答으로 生活環境과 거기에 따른 精神的 疲勞로 施術者와 施術을 받는 사람의 精神的 態度를 指適하였

그러므로 앞서 우리나라의 習俗인 장맛이나 할머니의 약손 역할은 어디까지나 얼마만큼 精神을 집중시켜 移精變氣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漢醫學의 說明으로 풀이한다면 장을 담그는 사람의 손끝에 우리 몸의 衛氣(陽氣)가 많이 모여졌을 때 장맛이 좋아지고, 배를 문지르는 할머니의 손끝에 衛氣(陽氣)가 많이 모여졌을 때 배앓이가 신속히 治療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洪文和先生님의 發表內容으로 보면 許浚은 本草學者로서 높이 評價되었습니다. 그 理由로 東醫寶鑑의 湯液篇을 引用하시어 거기에 나타난 鄉藥에 관한 것을 許浚의 獨創性으로 보시고 그 湯液篇은 中國本草學의 踏襲이 아니라 韓國獨自의 本草學 著述이라는 點을 지적하셨습니다. 본인은 鄉藥의 獨創性에 대하여 異見을 가지고 있고, 또 東醫寶鑑의 內容으로 보아 그는 本草學者로서보다는 臨床醫로서 더 評價되어야 한다는 意見을 갖고 있기에 그 點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鄉藥에 대한 關心은 이미 高麗 高宗時부터 始作합니다. 高宗 23年(1236) 頃에 民間古老들이 自國產인 鄉藥으로서 救急에 常用해 오던 鄉藥의 經驗方들을 蒐集하여 鄉藥救急方 上, 中, 下 三卷(現在 日本宮內廳書院部에 秘藏—鄉藥 180種, 俗名, 藥味, 藥毒 및 採取方法, 吏讀式 表記)을 비롯하여 高麗末에 三和子鄉藥方, 鄉藥古方, 東人經驗方, 鄉藥惠民經驗方, 鄉藥簡易方이 編纂되었습니다. 朝鮮에 들어와 濟生院에서 刊行한 鄉藥濟生集成方을 비롯하여 世宗 13年(1431)에 鄉藥集成方 85卷을 편찬하였는데 그중 76卷에서 85卷까지가 鄉藥本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鄉藥에 대한 研究는 이미 高麗 中葉부터 始作되었으며 거기에서 鄉藥에 대한 鄉名을 鄉藥救急方에서 吏讀로 表記하였고 鄉藥集成方에서 처음으로 한글로 表記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鄉藥에 대한 研究는 東醫寶鑑에서 許浚이 처음으로 試圖한 것이 아니고,

또 獨創的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當時 國家的 政策의 一環이 아니었다 생각됩니다.

東醫寶鑑 序文(月沙 李廷龜)에 보면『召太醫 許浚 “敎曰近見 中朝方書 皆是抄集, 庸瑣不足觀爾 宜哀聚諸方輯成一書 且人之疾病 皆生於不善調攝, 修養爲先 藥石次之 諸方浩繁 務擇其要 窮村僻巷無醫藥而 夭折者多 我國鄉藥多產而人不能知爾 宜方類並書鄉名 使民易知”』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東醫寶鑑 編纂은 龜巖이 宣祖大王의 뜻을 받들어 첫째, 疾病이 調攝을 하지 않는데서 생기므로 修養(養生)을 重要視하였고, 둘째 愛民의 精神으로 窮村僻巷의 無醫村에서 쉽게 求하여 疾病治療에 쓸 수 있는 鄉藥을 開發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東醫寶鑑에 있어서 湯液의 內容은 너무 간단하고 疎略한 감이 있습니다. 이 點에 대하여 故 申佶求先生은 그의 申氏本草學에서 그 理由는 아마 壬辰·丁酉의 倭亂과 70의 高齡으로 因하여 불가피하게 要約한 것으로 믿어진다고 指摘하셨습니다.

다만 刮目할 것은 國產藥을 일일이 한글로 우리나라의 명칭을 적은 것은 本草學 研究는 물론, 愛國心의 발로라고 볼 수 있는 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앞서 指摘하였듯이 이 鄉藥에 대한 研究는 이미 高麗 中葉부터 始作하여 世宗祖에 鄉藥集成方을 編纂함으로 절정에 이르렀던 것으로 史料됩니다. 그러므로 東醫寶鑑 湯液篇의 鄉藥은 鄉藥集成方의 範圍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다만 鄉名에 대하여 우리나라 이름을 붙인 것이 鄉藥集成方에서 보다 좀 많은 것뿐입니다.

이렇게 볼 때 湯液篇의 鄉藥에 대한 獨創性은 稀薄해집니다. 아울러 許浚은 엄밀한 意味에서 本草學者로서보다는 臨床醫로서 더 높이 評價되어야 할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東醫寶鑑을 評할 때 그 編輯內容을 들어 現代醫學의 分類形式으로 되었다는 點을 높이 評價합니다. 즉 內景, 外形의 두 부

분으로 나누어 古代의 人體, 生理, 解剖方面의 知識에 대하여 概括的인 論述을 하였읍니다. 또 各種 病類를 分類하여 論하기 前에 總論으로 診斷方法, 用藥原則을 論述한 뒤 다시 各論으로 婦人, 小兒 等 專門科目으로 分類하여 各種疾病의 治療方法을 詳述하였읍니다. 그리고 卷末에 「湯液, 針灸」兩篇을 並附하여 常用하는 中國醫藥의 藥理知識과 針灸知識에 有關된 것을 記述하고 우리나라에서 生産되는 鄉藥에 대하여 鄉名, 產地, 採集日月, 修治 等의 方法을 적었읍니다.

둘째, 書誌學的인 面에서 價値가 있다고 합니다. 즉 現在 中國에서 亡佚된 醫書가 거기에 引用記載되어 있다는 點에서입니다.

세째, 庶民醫學으로 기여하였다는 것입니다. 鄉藥에 대한 鄉名, 產地, 採集日月, 修治 等を 상세히 기록하여 누구나 쉽게 구하여 질병 치료에 임할 수 있게 하였고, 藥의 用量도 當時 백성의 체질에 맞게 中國에서 통일된 明代의 用量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이밖에 東醫寶鑑을 다음과 같은 點을 들어 評價하고 싶습니다.

1) 精神醫學 및 豫防醫學의 面에 重點을 두었다고 보고 싶습니다. 즉 內景篇의 精, 氣, 神門에서 보는 것과 같이 人間의 精神의 面을 重要視하여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하여는 許浚 자신도 東醫寶鑑 集例에서 밝혔읍니다. 『臣 謹按人身內有五臟六腑, 外有筋骨, 肉, 血, 脈, 皮膚以成其形而精, 氣, 神又爲臟腑百體之主 故道家之三要, 釋氏之四大 皆謂此也……』

이와같이 人身의 五臟六腑나 筋骨, 肌肉, 血脈, 皮膚는 形態를 構成하고 精氣神이 臟腑와 百體(肉身)를 主管하여 生命活動을 하게 되므로 肉身보다 이 肉身을 主管하는 精, 氣, 神 卽 精神의 面이 더 重要하다고 본 것입니다.

2) 產學協同의 精神에서 編纂되었다고 보여 집니다. 즉 東醫寶鑑에는 醫學說문만이 아니라 이와 有關된 당시의 儒, 佛, 仙의 諸家說이 引用되었다는 點입니다. 예를 들면 道家의

三要, 釋氏(佛敎)의 四大說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東醫寶鑑은 이상 말씀드린 이러한 點들을 포함시켜 評價하는 것이 옳지 않을가 생각되는 바입니다.

中央大 韓 德 龍

일본에서 해석하고 있는 苦手의 概念은 先天的으로 固定된 것으로 의식되고 있는 것으로 宮下先生은 발표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傳來되는 일본에 있어서의 苦手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개념과 다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일본에서는 본래 苦手 하면 상대하기 難處한 상대나 경우를 가리키는 通念이 傳해져 오고 있고 이것이 이번 發表에도 多分히 適用된 痕跡이 있다.

그러나 韓國에 있어서 漢方的인 苦手에 대한 해석은 손으로 하는 醫療的인 措處에 대해서 特殊한 適應力을 지니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더 正確하게 이야기한다면 일본에서의 해석과 같이 어렵다거나 아니면 손이 매섭다든가 하는 특수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苦手는 特定한 일에(醫療的) 대해서 남달리 유능한 재주를 지니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즉 針灸라든가 按摩 등 주로 손으로 하는 治療方式에 대해 대단히 先天的으로 skilled 또는 skillful한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韓國의 苦手에 대한 解釋은 日本에 있어서의 해석과는 어느 面에서나 서로 같지 않은 通念上的 構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洪文和教授는 東醫寶鑑에 收錄되어 있는 本草와 許浚 自身이 添加한 附方에 대해서 깊은 關心을 가지고 있음이 自明하다. 사실에 있어서 韓半島는 三國時代 以來 鄉藥化의 思想이 대두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實際에 있어서 이러한 民本思想은 百濟時代에 있어서의 그 啓發과 實績에 括日할 수가 있다.

즉 百濟鄉藥方의 創始는 葛洪의 肘後方 6卷이 參考, 引用되었다고는 하나 鄉藥思想의 擡頭는 史實에 있어서 적게 볼 수가 없다. 그 후

高麗에 이르러 이러한 自主治療와 藥材의 供給의 大한 努力이 提高되어 三和子鄉藥方, 鄉藥古方, 東人經驗方, 鄉藥惠民經驗方 등이 續出하여 東人鄉藥의 嚆矢를 構築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高麗時代의 業績과 惠民思想이 그대로 朝鮮으로 踏襲되어 마침내 鄉藥의 大成을 보게 되는 것인데 許浚의 東醫寶鑑의 出刊은 그때까지의 그 自身の 知識과 經驗을 살려서 펴 낸 것이기는 하나 本草에 관한 限에 있어서는 당시까지 集成해 놓은 鄉藥本草書들을 十分 網羅하여 그의 名著 東醫寶鑑에 適切하고 손쉽게 쓸 수 있게끔 配列해 놓았다고 보는 해석이 옳을 줄로 안다. 따라서 許浚이 本草學者라고 볼 수는 없고 우리나라대로의 便宜와 實際를 위해서 本草를 按配, 編成해 놓은 데 있어서는 唯獨 그의 勞力과 功이 컸다는 것만은 그 實蹟에 의해 認定할 수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答: 洪 文 和

鄭遇悅教授님의 該博適切하신 論評에 對하여 感謝를 드립니다. 許浚이 臨床大家일뿐만 아니라 그의 醫論이 心身相關醫學 및 豫防醫學의 面에 重點을 두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입니다. 또한 그의 著述인 東醫寶鑑을 보면 李廷龜의 序文에도 나와있는 바와 같이 「...窮村僻巷 無醫藥而 夭折者多 我國鄉藥多產而人不能知爾 宜方類並書鄉名 使民易知라 하여 우리나라 藥物을 基本으로 하여 湯液本草를 編纂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湯液本草가 「證類本草」 또는 明나라의 新醫書인 「醫學正傳」, 「醫學入門」, 「丹溪心法附餘」, 「食物本草」 등의 根據를 두고 있음이 事實이나, 그와같은 原典의 引用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許浚 自身の 見解가 約 90種의 藥物에 對

하여 「俗方」이라고 하여 밝히고 있음을 볼 때 이와같은 俗說을 分析하면 湯液本草의 獨創性이 나타날 것으로 믿습니다.

俗說은 名稱 및 基原에 關한 것이 14件, 效用에 關한 것이 18件, 性狀에 關한 것이 45件, 鑑別法에 關한 것이 6件으로 되어 있으며 產地를 보더라도 世宗地理志 이후의 새로운 知見이 망라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우기 唐材의 國產化를 위해서 한 甘草, 麻黃, 零陵香, 安息香 등의 威城試驗結果 또는 代用藥物에 關한 記錄은 지금도 생생한 感懷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鄉藥운동은 貴說과 같이 이미 高麗中葉부터 시작된 것이며 決코 許浚의 創始가 아님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醫·藥이 分離되지 않고 藥性에 能通한 사람이 또한 臨床醫가 될 수 있던 當時에 있어서 許浚의 本草學에 關한 造詣가 오직 中國 것의 換骨奪胎에 그치지 않고 當時의 우리나라 實情에 符合된 湯液本草를 編纂할 수 있었다는 點만으로도 許浚의 本草에 對한 評價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냐는 衷情에서 本草學者로서의 許浚을 論하여 본 것임을 諒解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德龍교수님의 適切하신 指摘을, 感謝하게 생각합니다. 鄭遇悅教授님의 論評에 對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許浚이 鄉藥運動의 創始者가 아님은 말씀드릴 나위도 없습니다. 어떤 緣由인지 우리나라에서 獨自의인 本草學이 크게 發展되지 못한 상황 아래서 許浚의 湯液本草 정도의 獨創性을 지니고 있는 것도 크게 評價, 分析되어야 할 것으로 믿어 問題를 提起하려는 意圖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